

투데이 칼럼

‘日 아베를 만나라?’ 이것이 실리 외교인가?

며 칠천 원고마감을 끝내고 배낭과 노트북만 챙기고 훌쩍 치앙마이로 왔다. 이곳의 기후가 한국보다 낫다. 덜 습해 끈적임이 덜하다. 새벽녘, 총다리로 추정되는 새소리가 짝을 이뤄 지저베베 하모니를 이룬다. 무심히 창문을 열었다더니 새는 오간데 없고 신 새벽 태양의 그늘에 비치는 바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움직인다. 문득 혼자 있을 때가 외롭지 않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외롭다는 생각이 스친다. 바람이 멈춘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연대감이 가지는 편리함 보다는 상대에게 평가 받기 쉬운 인간적 긴장감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싫었다. 그래서 치앙마이를 찾았다. 어제 우연찮게 한국인 일행을 만났다. 역시 한국을 벗어나 어딜 가던지 한국인과 마주치지 않는 이국 땅은 없었다. 치앙마이 남반면 대로변에서 6로도로 백여미터 들어가면 '누안 베이커리'라는 빵집 겸 커피전문점이 있다. 손님들이 많지 않고 호젓한 느낌이라 노트북을 챙겨 그 곳을 찾았다. 우연찮게 앞자리에 한국인 일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를 등지고 앉아 있는 사십대 중후반의 중년사내는 모 증권사 간부인 듯 우리 증권사는 운운하며 와이프와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딸들로 보여 지는 가족에게 가장의 권위를 폄 내고 있었다. 급기야 혼계 비슷한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일본은 경제가 너무 좋아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아예 어이가 없다.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등 과거사에 집착하는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등 아예 아베 정권을 옹호하는 듯 했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아베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문장만 보면 딱히 반박하기 어렵다. 외교는 분명 그런 면이 있긴 하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대일 외교중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강경외교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위안부 문제? 초계기 사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미쓰비시보상 대법원 판결? 이런 심지어 정부가 한 일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이다. 현재 초강경외교를 하는 쪽은 아베. 우리는 단지 그런 협박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뿐이다. 아베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기어가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아베를 만나라고 조언한다. 이 말도 우리가 아베를 안 만나려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아베가 온갖 핑계를 대며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나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끊임 없이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길 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를 만나라고 조언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아베

의 요구를 들어주란 뜻인가. 아베의 희망하는 한일관계는 무엇인가.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다시는 아무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하고 앞으로 일본말을 잘 들겠다고 고개라도 숙이라는 뜻인가? 이것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실리 외교인가? 이런 실리외교가 아니라 굴욕외교이자 주권국가임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딱 백여년전 친일민족반역자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정부당국이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은 백프로 동의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현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아베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누가봐도 양국 모두에 손해인 일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아베의 무억도발에 어떤 맞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외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보다 냉정할 수 있는가? 냉정하게 행동하라는 충고는 바로 아베에게 해야할 말이다. 그럼에도 정작 문제의 근원인 아베에게 아무 말 안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 건 냉정하다 못해 뇌가 얼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적어도 국가간 문제에서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란다.

사설

새만금 담수화, 이대로는 곤란하다

새만금 담수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도가 외부의 입찰에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 또다시 풀티거리가 되고 있다. 새만금 담수화는 만경강이 말을 하게 돼 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만경강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지적하는 소리가 뜰하라고 해서 그동안 마음을 놓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안 된다. 전북도는 수질 오염 관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실 말이지 만경강 수질 오염은 어제 오늘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제 강산도 두 번은 바뀌었을 법한 세월이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귀를 시끄럽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만경강 수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장차 우리 전북이 발전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아 지나치지 않다. 수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으면서도 정작 수질 개선에는 다들 손을 놓고 있으니 답답하다. 구태여 하던 청소를 하지 않아도 자연이 다 알아서 정화시켜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염도 어느 정도 라이지 큰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다면 자연 정화는 어렵 턱도 없다. 그걸 잘 알고 있

으면만 있을만 하면 새만금 수질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니. 전북도는 만경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동안 퍼부은 돈이 천문학적이었음에도 수질 정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말로 어쩌면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이십년 간 4조 원의 거금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매년 6급수 수준의 구정물을 두고서 공색한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질오염 관리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수질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자연이 시시때때로 도와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꿈같은 일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만경강 수질 개선은 각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만경강 하류 지역은 물론이고 소하천이 있는 상류 지역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참에는 입을 맞추면서도 실행에는 제 각각 판침을 부리고 있으니 별 일이다. 수질 관리에 소극적이면 새만금 유역의 정화는 말 그대로 백년하청이다.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흘러 내보내면서 새만금 사업이 잘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얼마나 염치없는 생각인가. 새만금 담수화는 오염원을 내버려 둔 채 이대로는 안 될 일이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로컬푸드

로컬푸드가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저번에 전북도가 전국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만큼이나 밝은 소식이다. 올해 상반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서른 여덟 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이 486억원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22%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한 농민들의 수는 1만488명인데 1인당 46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도청 등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지역농산물 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로컬푸드 사업이 주효한 결과이지 싶다. 로컬푸드 사업의 꾸준한 성공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할만하다. 전북도가 로컬푸드 사업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성과를 내고 있다지만 다른 산 업과 비교해 갈수록 농업이 위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마을 여섯 곳 중 하나 꼴로 소멸 위기라는 저번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지난 날 농촌 소멸 위기 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던 만큼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안 좋

아졌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 전북도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오래 추진해 왔을 터이고 이번에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터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전북도는 저번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삼락농정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찾는 농촌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북도는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외치는 것보다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로컬푸드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전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전북 농업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저번에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잘한 일이고 이번에 로컬푸드 사업의 진전도 잘된 일이다.

기고문

매우 습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장마와 함께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이 침수되거나 매몰되는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이럴 때 방심한 채 운행하다 폭우나 지역적 특성으로 도로가 잠긴 곳이 지나치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막상 운전하다가 침수된 도로를 보게 되면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하며, 앞 차도 그냥 갔는데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장마철 차량 침수대비 운전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장마철 차량 관리와 운전요령

우선, 물웅덩이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도로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때 물웅덩이는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20km 이하 저속으로 멈추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두 번째, 통과 후에는 브레이크를 말려주어야 한다. 비위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 같이 있던 브레이크도 함께 젖는다. 물에 젖은 브레이크는 필요한 상황에서 제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물웅덩이 통과 후에는 브레이크를 2-3번 밟아 주면서 마찰력으



이 지 원 남원경찰서 경우과 경우계

로 건조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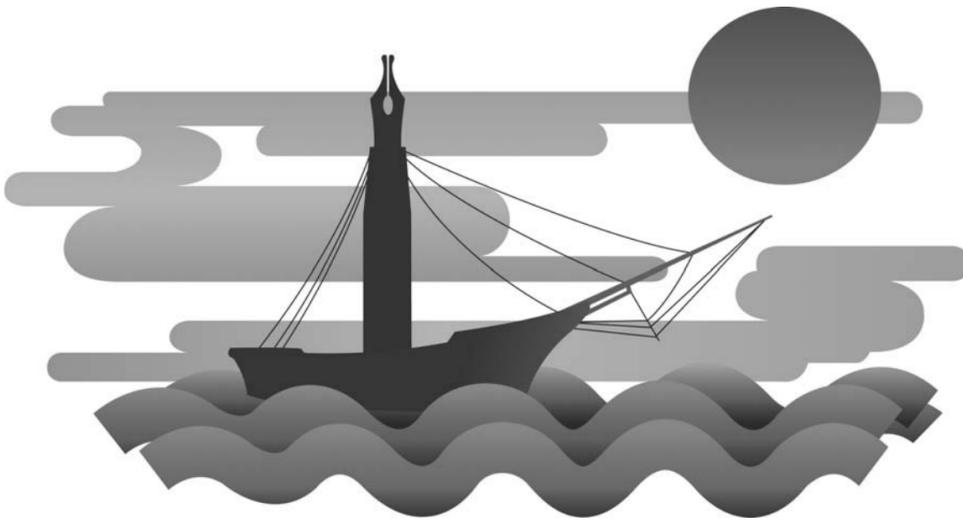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